『종교와 문화』 제4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2. pp. 103-141

일본의 요괴개념과 재해요괴
: '나마즈'와 '아마비에'를 중심으로

박 병 도*

Ⅰ. 들어가며: 일본문화를 읽는 키워드로서의 '요괴'
Ⅱ. '요괴' 개념과 '요괴학'의 역사
1. '요괴'의 의미와 인접개념들
2. 일본 요괴학의 성립과 '요괴' 개념
3. '요괴' 개념의 정착과 요괴학의 한계
Ⅲ. 전근대 재해요괴의 등장: 1855년의 지진과 나마즈
1. 지진의 발생과 나마즈에(鯰繪)의 등장
2. 재해요괴로서의 '나마즈'
Ⅳ. 현대 재해요괴의 등장: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과 아마비에
1. 코로나 재해와 아마비에의 등장
2. 재해요괴로서의 '아마비에'
Ⅴ. 나오며: '재해요괴'의 의미와 요괴학의 과제

Ⅰ. 들어가며: 일본문화를 읽는 키워드로서의 '요괴'

현대 일본문화를 이야기할 때 '요괴(妖怪, 일본어 음으로는 요카이)'라는 주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수많은 작품의 주요 소재가 '요괴'라고 지적되어 왔으며,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요괴워치>나 <포켓몬GO> 등과 같은 게임들 역시 '요괴'를 소재로

* 경상국립대학교 일어교육과 조교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즉 현대 일본의 문화컨텐츠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요괴'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영상산업과 게임산업의 인기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며 일본문화에서의 '요괴'의 중요성이 주목받아 온 것이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들어온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큰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 '요괴'라는 소재가 일본문화를 읽는 키워드로 주목받았고 학자들도 '요괴' 통해 일본문화와 일본인의 심성을 읽으려는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 왔다.[1)]

그러나 한국에서의 이러한 '요괴'를 통한 일본 문화읽기의 시도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바로 '요괴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즉 '요괴'라는 용어가 칭하는 대상이나 현상의 정의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만화, 애니메이션과 게임 속에 등장하는 '인간은 아니지만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를 칭하는 용어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던 '요괴'라는 단어를 그대로 수입해서 사용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요괴의 개념을 포함한 요괴에 대한 대다수의 논의는 현대 일본 요괴학의 창시자라고 평가받는 민속학자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2)]의 요괴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요괴론'을 일본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다시 적용하여 분석하는 흐름이 주가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3)] 고마쓰 가즈히코의

---

1) '요괴'를 중심으로 일본문화를 읽으려는 시도는 수많은 한국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로 일본의 요괴학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박전열 등을 들 수 있다. 박전열 외 공저, 『현대일본의 요괴문화론』 (서울:제이앤씨, 2014); 박전열, 「현대 일본사회의 요괴 붐」, 『일본비평』 10-1 (2018): 68-99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 외에도 고려대 일어일문과 출신의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출판한 다음의 두 서적도 이러한 요괴연구의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류정훈 외 공저, 『진짜 일본은 요괴문화 속에 있다』 (서울: 시간의물레, 2018); 김진영 외 공저, 『일본 요괴문화 상품이 되다』 (서울: 시간의물레, 2018).

2)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 1947-)는 일본의 민속학자로 신슈대학과 오사카대학을 거쳐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와 소장을 지내고 2021년 은퇴했다. 박사논문을 출판한 『憑靈信仰論-妖怪研究への試み(빙령신앙론-요괴연구의 시도)』 (東京: 伝統と現代社, 1982)를 시작으로 요괴와 괴이(怪異), 이인(異人)과 이계(異界), 저주(呪い), 신이 된 인간 등을 주제로 일본 민속문화를 분석해 왔다. 특히 '요괴학'을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착시키려고 천착해 왔다고 평가받는다.

3) 실제 고마쓰 가즈히코의 여러 저서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의 학자들과 함께 작업한 저서들도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일본 요괴연구는 고마쓰 가즈히코의 영향을 지대

요괴개념론에 기대면서 현대 일본 매체문화 속의 요괴의 의미와 그러한 요괴들의 역사적 뿌리, 이를 향유하는 현대 일본인의 심성과 그 속의 일본문화의 본질 찾기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요괴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과 고마쓰 가즈히코의 요괴학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요괴론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문제의 환기라는 측면에서 '요괴'와 함께 언급되어 온 여러 유사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며 '요괴' 개념의 여러 층위와 범주를 고마쓰 가즈히코의 요괴학 성립까지의 역사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요괴'라는 용어와 개념이 근대 이후 요괴학이라는 분과학문의 성립사 속에서 일본 사회에 정착한 점, 그리고 이러한 요괴학이 문헌과 매체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요괴를 찾아 정리하는 '사전학'과 요괴의 외적·내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는 '분류학'의 단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요괴학이 쌓아온 요괴의 개념론과 범주론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로서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요괴'가 어떻게 등장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미를 획득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후 또 어떻게 의미가 변해가는지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른바 요괴의 개념론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요괴의 생성사와 변화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요괴'와 주변 개념들과의 관계, 요괴와 매체와의 관계, 요괴의 등장배경과 그 의미에 관해서도 자연스레 논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두 사례는 재해 속에서 나타나는 '요괴'적인 존재들이다. 전근대와 현대의 재해상황 속에서 요괴적인 존재가 등장하고 이들이 사

하게 받고 있다. 번역된 저서로는 고마쓰 가즈히코, 『일본의 요괴학 연구: 요괴를 통해 보는 일본인의 멘탈리티』, 박전열 옮김 (서울: 민속원, 2009), 원저는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 『妖怪學新考: 妖怪からみる日本人の心』(東京: 小學館, 1994); 고마쓰 가즈히코 엮음, 『요괴학의 기초지식』, 천혜숙 외 옮김 (서울: 민속원, 2021), 원저는 고마쓰 가즈히코 편(小松和彦編), 『妖怪學の基礎知識』(東京: 角川學芸出版, 2011) 등이 있으며 한국의 학자들과 함께 저술한 책으로는 중앙대학교 한일문화연구원 엮음, 『일본의 요괴문화: 그 생성원리와 문화산업적 기능』(서울: 한누리미디어, 2005); 서화룡 엮음, 『귀신·요괴·이물의 비교문화론』(서울: 소명, 2014); 한양대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엮음, 『요괴: 또 하나의 일본의 문화코드』(서울: 역락, 2019) 등이 있다.

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문화현상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하나의 사례가 1855년의 지진재해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나마즈'라는 존재이며, 다른 한 사례가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등장한 '아마비에'라는 존재이다.

Ⅱ. '요괴' 개념과 '요괴학'의 역사

1. '요괴'의 의미와 인접개념들

'요괴(妖怪)'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자어로서 '妖怪'라는 단어 자체는 중국, 한반도, 일본 고대부터 여러 자료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4] 그런데 특히 한반도와 일본에서 이 '요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문맥을 보면 '요상하고 괴이한'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 형용사가 수식하는 '요상하고 괴이한 현상' 또는 이에 대한 해석까지 더해져 '흉조', '신불(神佛) 등의 존재로부터의 경고'로 이해해 왔다. 오늘날 '요괴'하면 떠올리는 특정 모습과 이미지를 지닌 실체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즉 '요괴'를 이미지나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는 '모노(物)'로 생각하는 것은 꽤 후대에 와서야 나타나게 된다. '요괴'라는 단어에 '존재'라는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세 말인 14세기 후기 정도부터이지만 이후에도

4) 중국 문헌에서는『한서』,「순리전(循吏傳)」에 '妖怪'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괴이하고 이상한 현상'의 의미로 나오나, 4세기 진나라 간보(干寶)가 지은 괴기 소설인『수신기(搜神記)』권6에서는 "요괴(妖怪)는 정기(精氣)에 의한 물(物)(妖怪者, 盖精气之依物者)"이라고 하며 실체로서의 의미도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 한편 한반도에서는『삼국사기』권15 고구려본기 제3, 차대왕 3년 7월 기사에 '妖怪'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냥 중에 나타난 흰 여우를 묘사하는 '요사스럽고 괴이하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8세기에 성립된『속일본기(續日本紀)』권34에 "궁중에 요상하고 괴이스러운 일이 빈발하여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大祓)를 설행했다(大祓, 爲宮中頻有妖怪也)"는 구절 속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상하고 괴이스러운 일 또는 현상'의 의미이다.

여전히 형용사적인 의미가 유지되었고 근대 이후 요괴학이 등장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존재보다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요괴(妖怪)'는 개념적으로 처음부터 이미지와 형태를 전제로 하는 '괴물(怪物)'과는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괴'라는 단어의 역사를 생각하면 오늘날 일본문화를 읽는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는 '요괴'와 현대 한국어에서의 '요괴'라는 단어 역시 근대 이후 일본에서 '요괴학'이라는 학문의 분야가 제창되고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본격적으로 일본 사회에 정착되었고, 이후 한국에도 수입된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요괴'라는 개념은 어떻게 등장하고 정착하였을까? 이러한 질문에 앞서 '요괴'와 관련되는 여러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근대 일본에서 현대의 '요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거나 비슷한 맥락에서 쓰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괴이(怪異), 모노노케(物の怪·もののけ), 바케모노(ばけ物·化物)·오바케(お化け), 오니(鬼)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요괴'의 의미까지 고려한다면 원령(怨靈), 사령(死靈), 귀신(鬼神)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을 의미하는 '가미(神)'까지 함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괴이(怪異)'는 요괴(妖怪)의 고전적인 형용사적 의미가 살아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요상하고 괴이한 현상, 사건, 물체'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도 빈번히 등장할 정도로 전근대 한반도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한편 '모노노케'와 '바케모노'는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 '모노노케'가 일본 고대와 중세 문헌에 주로 등장한다면 '바케모노'는 근세 문헌에 주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의미 역시 차이가 나는데 '모노노케'는 일본 고대와 중세 문헌에서 '物の怪' 또는 '物の氣'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형태보다는 기(氣)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당시에는 인간에게 빙의하는 기운 내지 존재로 이해하기도 했다. 따라서 형태를 지니지 않고 나타나는 괴이스러운 기운과 이러한 기운을 내뿜는 존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5) 반면 바케모노는 '化けるもの'라는 의미로 본래의 모습에서 형태를 바꾸어

5) 고야마 사토코(小山聰子), 『もののけの日本史-死靈、幽靈、妖怪の1000年』(東京:

다른 모습이 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 '바케루(化ける)'에 물체를 의미하는 '모노(もの)'가 합쳐진 용어로, 원래의 모습에서 인간 등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래의 이미지와 이후의 이미지가 전제되며 물리적인 형태도 어느 정도 전제가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근세 일본에서는 '妖怪'라고 표기하고 '바케모노'라고 읽는 경우도 문헌 속에 자주 나오는데 '요괴'라는 용어에 존재의 의미가 더해져가는 과정을 보여준다.6)

흔히 한국어로는 '도깨비'로 번역되는 '오니(鬼)'는 그 어원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한자 '숨을 은(隱)'의 일본어음 '온'에서 나와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설이 있다. 현대 일본인의 감각으로는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나 머리에 뿔이 있는 등 일부 차이가 있고 성질이 포악한 괴물로서 상상되어온 존재이다. 오니는 '바케모노'와 병용되는 경우도 많으나 그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만을 언급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물리적인 형태가 전제된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한편 원령(怨靈, 일본어음 온료)와 사령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 현세에 남겨진 존재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런 점에서 영(靈)과 혼(魂), 백(魄), 귀(鬼)로 표상되어 온 인간 사후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귀신(鬼神)이라는 용어도 같은 맥락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이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위계를 두고 서로를 구분하는 것이 한·중·일 세 한자문화권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특히 '원한을 품고 산 자에 다타리(祟り, 빌미)를 내리는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원령'이 강조되었다.7) 한편 고대 일본에서 '원령'이라는 용어는 '모노노케'와도 밀접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체를 알 수

中央公論新社, 2020). 특히 2장-4장에서 모노노케의 중세까지의 의미와 그 이후의 의미 변화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근세에는 '모노노케'와 '유령(幽靈)'이 큰 구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6) 고야마 사토코, 『もののけの日本史』, 165-166. 여기서는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의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1776년 간행)에서 '妖怪'를 'もののけ'로 후리가나를 달고 있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7) 야마다 유지(山田雄司), 『怨靈とは何か-菅原道眞·平將門·崇德院』(東京: 中央公論新社, 2014); 이케가미 요시마사(池上良正), 『死者の救濟史—供養と憑依の宗教學』(東京: 角川書店, 2003), 2장-3장.

없지만, 병을 일으키고 불행을 초래하는 '모노노케'의 정체가 어떤 존재의 '원령'으로 설명되는 경우에 모노노케는 원령의 나쁜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다.8)

마지막으로 신(神)의 일본어 음인 '가미'라는 존재도 '요괴'의 개념과 범주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의 '가미'는 '神'으로 표기되는데 이것이 과연 일본문화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존재를 지칭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요괴'의 개념을 묻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나 『고사기』와 『일본서기』라는 일본 고대의 문헌에서부터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후에도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처럼 인간이 원령이 되고 이후 이 존재가 다시 천신(天神)으로 받들어지는 등 인간의 사후 존재인 원령, 사령들도 가미가 되는 경우가 시대가 갈수록 더욱 늘어난다. 중세 말 가족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이에제도가 정착되며 서민들 사이에서도 이 이에(家)의 뿌리인 선조들을 조상신으로 폭넓게 포섭해 나간다. 팔백만의 가미가 있다는 일본에서 이러한 신들의 성격은 천차만별이며 그 뿌리 역시 해, 달, 산, 강 등의 자연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처음부터 가미로 불린 것이 아니라 나름의 진화론을 거쳐 '가미'로 화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요괴'와 관련해서는 근대 이후 일본 요괴학의 정립 과정 중에 '요괴'는 '가미'와의 관계 속에서 범주화와 개념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요괴학이라는 근대 일본 특유의 분과학문의 성립과정에 야나기타 구니오와 고마쓰 가즈히코와 같은 주요 학자들이 신과 요괴의 비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요괴에서 신' 또는 '신에서 요괴'로의 진화론을 통해 '요괴'라는 개념을 정립하려고 시도해 나간다. 이러한 요괴개념의 정립과정은 신과 인간 범주의 경계 속에서 '괴물(monster)'의 특징을 찾으려고 한 서구의 괴물 이론(monster theory)과도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9) 이처럼 현재의 '요괴'라는 개념이 요괴학의 성립과 밀접히 연관이

8) 고야마 사토코, 『もののけの日本史』, 1장-3장.

9) 서구의 괴물(monster)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서에서는 괴물의 특징 중 하나로 범주의 위기 또는 범주의 경계선상에 있는 점을 들고 있다. 괴물은 인간과 신이라는 두 범주 사이의 경계에 존재하거나 그 경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존재라는 특징이 지적되어 왔다. Jeffrey Jerome Cohen, "Monster Culture(Seven Theses)," in *The Monster Theory Reader*, ed. Jeffrey Andrew Weinstock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0), 37-56; Timothy

있고, 요괴학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개념들 중에 '요괴'를 그 연구대상의 명칭으로 선택했다면 일본 요괴학의 성립과 요괴개념의 정착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일본 요괴학의 성립과 '요괴' 개념

현대 일본 요괴학을 정립한 이로 고마쓰 가즈히코를 앞에서 언급했지만 '요괴학'이라는 학문분야명과 연구대상으로서의 '요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는 근대 초 불교철학자이자 이후 근대교육가로 활동한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 1858-1919)이다. 철학자이자 교육가로서 이노우에 엔료는 근대 과학과 합리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일본의 근대화와 문명개화를 추구했고 이에 방해되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미신이자 '요괴'로 지칭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학문으로 '요괴학'을 주창하였다. 1886년 불가사의 연구회(不思議研究會)를 만들고 다음 해에『요괴현담(妖怪玄談)』을 출판하는데 이 책의 서(序)에서 이노우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요괴'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요괴로 인한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학술적으로 그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문명진보를 위해 필요하여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1절 총론에서는 요괴를 "동서양과 세상고금을 막론하고 우주물심(宇宙物心)의 제상(諸象) 중에 보통의 도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요괴라고도 하고 혹은 불가사의라고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0] 즉 이 단계까지도 '요괴'는 괴이하고 요사하며 불가사의한 현상적 측면을 여전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요괴학'은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이에 대한 믿음을 없애는 것에 있다고 여겼는데 대체로 이를 신경증 증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이노우에는 각 지역의 '요상하고 괴이한' 이야기

Beal, "Introduction To Religion and Its Monster," in *The Monster Theory Reader*, ed. Jeffrey Andrew Weinstock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0), 295-302.

10)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妖怪玄談』(1900, 초판 1887)(일본국회도서관디지털콜렉션 청구번호: 82-250); 도요대학이노우에엔료기념학술센터 엮음(東洋大學井上円了記念學術センター編),『井上円了 妖怪學全集』第4卷 (東京: 柏書房, 2000)에 재수록.

를 수집하고 이를 설명하려고 한 결과물을 1894년에 출판하는데, 이것이 『요괴학강의(妖怪學講義)』[11]이다. 여기서 '요괴'의 의미도 이노우에가 '요괴' 용어와 함께 붙여서 사용한 '불가사의(不思議)'와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민속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 1875-1962)는 이노우에 엔료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요괴'와 '요괴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야나기타는 풍속사가 에마 쓰토무(江馬務, 1884-1979)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이 에마 쓰토무의 대표적인 업적이 『일본요괴헨게사(日本妖怪変化史)』[12]이다. 이 책에서 에마 쓰토무는 일본의 설화와 두루마리 그림(繪卷) 등에 그려진 '정체를 감추고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는 것'들을 '요괴헨게'라고 칭하며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여기서 '요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헨게(変化)'는 외양적인 모습을 바꿔 나타나는 현상 또는 나타난 것 자체를 의미한다.[13] 즉 '요괴헨게'는 앞에서 언급한 '바케모노(化け物)'와 통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요괴'는 원래의 모습에서 변화해 가는 '현상'에서 나아가 변화한 '대상'도 지칭하게 된다. 야나기타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 자신이 개척한 민속학이라는 학문의 하부 분야로서 '요괴학'을 위치시키며, 요상하고 괴이한 현상보다는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면서 전국의 각종 민담 속에서 요괴를 채집하고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면서 '요괴'와 유사 개념들을 구분하여 요괴의 개념을 좁혀간다. 야나기타의 요괴론은 1956년에 저술한 『요괴담의(妖怪談義)』[14]에서 중점적으로 논해진다.

이노우에 엔료가 요상하고 괴이하다고 생각되는 현상들을 근대과학으로 설명

---

11)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 『妖怪學講義』(東京: 哲學館, 1894)(일본국회도서관디지털콜렉션 청구번호: 14-221); 도요대학이노우에엔료기념학술센터 엮음(東洋大學井上円了記念學術センター編), 『井上円了 妖怪學全集』第1-3卷 (東京: 柏書房, 1999)에 재수록.

12) 에마 쓰토무(江馬務), 『日本妖怪変化史』(東京: 中外出版, 1923). 이후 몇몇 논문을 추가하여 에마 쓰토무(江馬務), 『日本妖怪変化史』(東京: 中央公論新社, 2018)로 재출판.

13) 에마 쓰토무, 『日本妖怪変化史』(東京: 中央公論新社, 2018), 12-13.

14)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 『妖怪談義』(東京: 修道社, 1956). 이후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 『柳田國男全集』(東京: 筑摩書房, 1989), 7-212에 재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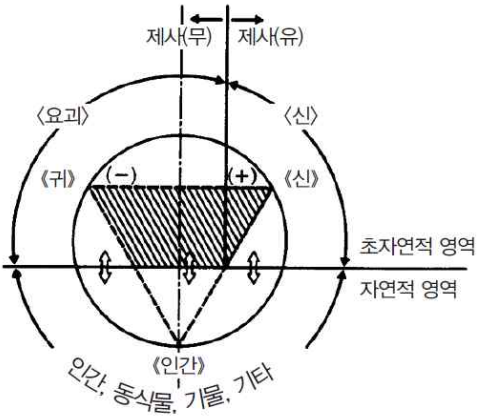
하여 그 비합리성을 폭로하려고 '요괴학'을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야나기타는 요괴 현상, 요괴 존재의 현존과 그 사실유무를 밝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아주 많았고 당시에도 적지 않게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요괴 현상과 대상의 진실성보다 이를 믿어 온 사람들의 현존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요괴담의』의 서문과 1장에서 '요괴'와 '바케모노'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며 그러한 '요괴'들의 예로, 갓파(河童), 덴구(天狗) 등을 언급하고 있다. 갓파는 물가에 살며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 먹으며 사람을 닮은 상상의 동물이고, 덴구는 산속에서 사는데 얼굴은 붉고 험악하며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 수 있고 신통력도 있는 존재인데, 이 단계에서 명확하게 '요괴'는 요상하고 괴이한 '현상'이라는 의미보다는 특정 이미지를 지닌 '대상'을 지칭하게 된다. 야나기타는 전국 각지의 요괴적인 존재들을 채집하고 그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며 요괴의 박물학과 지리학을 시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요괴의 범주론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요괴'는 '유령'과 구별되는 존재이며 '신'에서 추락한 존재였다. 야나기타는 요괴와 유령의 구별기준을 출현 장소와 출현 인물의 특정 여부로 생각했다. 요괴와 바케모노가 특정 장소에서만 나타난다면, 유령은 아무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지만 특정 인물에게만 나타난다고 한다. 여기서 '유령'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된 사령(死靈)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요괴의 발생론도 제시하는데 '요괴는 신이 영락한 존재'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이 쇠퇴하게 되면서 그러한 존재가 요괴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신'은 한없이 두려우며 대면하면 도망치는 존재라면 '요괴'는 그러한 '신'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되는 존재이다. 즉 야나기타의 요괴학에서 '요괴'는 인간이 죽어서 되는 '유령'과는 다른 존재이며 원래는 '신'이었던 존재이므로 요괴는 처음부터 그 자체로 존재할 수는 없는 신의 변질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요괴에 대한 논의는 야나기타 구니오 민속학의 하위 장르로서의 '요괴학'으로 발전해 나간다. 야나기타처럼 전국의 요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요괴'의 정의와 본질을 인접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도 빈번히 이루어졌다. 그러한 요괴학 흐

름의 종착지이자 새로운 출발점에 '고마쓰 가즈히코'라는 학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마쓰 요괴학의 큰 전제 역시 야나기타 구니오의 관점을 계승하여 '요괴' 자체보다는 '요괴를 믿는 사람과 그 세계관'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현상으로서의 요괴'를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요괴학을 총괄한 저서인『일본의 요괴학 연구』(원제:『妖怪學新考』)[15]는 고마쓰가 제시하는 '요괴'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요괴 사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마쓰 가즈히코는 인간이 스스로를 둘러싼 환경에서 공포심을 느낄 때 상상력을 동원해서 초월적 존재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곧 '요괴'라고 단언하며 요괴개념론을 정리해 나간다. 즉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불가사의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체계로서 초월적 존재를 '상상'하는데, 이 초월적 존재는 기본적으로 신적인 존재이며 이를 더 쪼개면 '가미'와 '요괴'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마쓰는 기본적으로 '요괴'를 '가미(神)'와의 대칭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인간, 동식물, 사물 등등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요괴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신'과 '요괴'의 구분기준을 '인간으로부터 제사여부'로 정하고 있다. 인간에게 제사를 받는 초자연적 존재는 신 즉 '가미'이며, 인간에게 제사를 받지 못하는 초자연적 존재는 '요괴'라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사후 제사를 받는 초자연적 존재가 되면 '가미(神)'가 되고 제사를 받지 못하면 요괴의 일종인 '오니(鬼)'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를 도식화하여 다음의 <그림1>로 표현하였다.

15) 고마쓰 가즈히코,『일본의 요괴학 연구: 요괴를 통해 보는 일본인의 멘탈리티』, 박전열 옮김 (서울: 민속원, 2009).



<그림1. 고마쓰 가즈히코의 인간·요괴·신의 관계 개념도>16)

이러한 <인간-요괴-신>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요괴' 개념 속에는 야나기타 구니오가 '신의 퇴락으로서의 요괴'로 신과 요괴의 관계론 속에서 요괴의 정의하려고 했던 시도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며, 인간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신과 요괴가 구분된다고 본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야나기타 구니오와 달리 고마쓰 가즈히코는 유령이라는 별도의 범주를 만들지 않았고 인간이 죽어서 신이나 요괴(鬼, 오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신이 추락한 것이 요괴(신→요괴)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에 따라 요괴와 신은 그 범주를 오갈 수 있다(신↔요괴)고 본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구체적으로 '제사'라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신과 요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제사를 받는 신은 인간에게 있어서 긍정적(+) 존재, 제사를 받지 못하는 요괴는 부정적(-) 존재로 인식된다고 본 점에도 차이가 있다. 다만 여기서 '제사(祭祀)'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본 역사적으로 행해온 신에게 제물과 기도를 바치고 신사나 사원을 세우는 등의 신과 인간의 교류행위 전반을 의미하고 있는 듯하다.

16) 고마쓰 가즈히코, 『일본의 요괴학 연구』, 46. 이러한 <인간·요괴·신>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요괴 정의의 시도는 고마쓰 가즈히코의 박사논문인 『憑靈信仰論-妖怪研究への試み(빙령신앙론-요괴연구의 시도)』의 6장 「山姥をめぐって一新しい妖怪論にむけて(야마우바에 대하여-새로운 요괴론을 향해서)」에서부터 나타난다.

일본 민속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고마쓰 가즈히코의 요괴개념론은 모든 존재가 인간의 공포로 비롯되는 상상력으로 인해 신이 될 가능성과 요괴가 될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신이 될 수도, 요괴가 될 수도 있고 제사를 받고 신이었던 존재가 제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요괴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직관적이며 유동적인 개념론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범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초월적 존재 중 인간에게 긍정적인 존재는 '신'이고 부정적인 존재는 '요괴'라고 정리하고 있다.[17] 이러한 요괴정의는 단순하고 명쾌하다는 점에서 이후 요괴학에서 이야기하는 요괴 정의의 대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폭넓게 인용되고 적용되어 왔다. 다만 여러 비판도 존재하는데 일본이라는 지역적 범위 속에서만 요괴를 논한다는 점, 제사를 받음에도 요괴처럼 인식되어 퇴치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이미 일본 고대신화 속에 등장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18] 한편으로는 현대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속의 '요괴'는 이러한 정의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19]

3. '요괴' 개념의 정착과 요괴학의 한계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근대 이후의 요괴학사 속에서 이노우에 엔료, 야나기타 구니오, 고마쓰 가즈히코라는 세 명의 학자를 중심으로 요괴의 개념이 점점 더 좁혀지면서 구체화되어 '초자연적 존재이면서 신은 아니며 인간에게 제사를 받지 않는 부정적인 존재'이면서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과 사물도 요괴'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특히 야나기타 구니오가 요괴론을 제시

17) 고마쓰 가즈히코, 『일본의 요괴학 연구』, 40-50.

18) 일본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야마타노오로치(ヤマタノオロチ)라는 머리 여덟의 뱀 모습의 존재는 제사를 받음에도 추방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고마쓰의 요괴개념에 따르면 '신' 또는 '요괴'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고마쓰 가즈히코는 제사의 주체와 추방의 주체가 다를 경우, 한 집단에서의 '신'이 다른 집단에서는 '요괴'로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마쓰 가즈히코, 『일본의 요괴학 연구』, 50-52). 다만 동일 집단과 사회 내에서 '신'과 '요괴'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존재나 그 경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19) 박전열, 「현대 일본사회의 요괴 붐」, 71-72.

하는 시기를 전후해서 '요괴'라는 용어가 특정한 이미지와 형태를 지닌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용례가 대중매체를 통해 다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요괴'라는 용어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오늘날의 '요괴'의 의미로 자리 잡아가게 된다. 대중매체 특히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요괴학이 발굴하고 정리해 낸 일본의 문헌자료와 구술자료 속의 요괴를 재현해 내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요괴를 창조해 낸다. 이렇게 창조된 근대 이후의 요괴들이 다시 요괴학의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요괴학-대중문화> 사이의 양방향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 대중문화를 통한 요괴인식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을 뽑자면 일본 요괴만화, 애니메이션물의 거장인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 1922-2015)'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미즈키 시게루는 <게게게의 기타로(ゲゲゲの鬼太郎)>라는 요괴를 소재로 한 만화 시리즈를 1960년부터 1997년까지 연재하였고 이는 1968년부터 2018년에 이러기까지 6기에 걸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요괴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화 작업도 진행하여 요괴 사전류를 다수 편찬하기도 하였다.[20] 미즈키 시게루가 편찬한 이 사전들은 뒤에서 살펴볼 '아마비에'라는 요괴의 유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요괴를 소재로 한 대중매체의 인기 속에 현재의 '요괴'라는 용어는 현대 일본의 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로까지 정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요괴학과 대중매체를 통한 요괴 인식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요괴학의 연구는 요괴의 수집과 분류의 단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 문헌과 구술자료 속에서 요괴를 찾고 분류하는 것에 더해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요괴를 모으고 분류하는 것이다. 극히 최근에는 지금까지 본고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요괴학사를 새롭게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검증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는데, 요괴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어떤 연구가 가능하고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본의 민속학과 인류학 내부에서

20)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水木しげる妖怪畵集』(東京:朝日ソノラマ, 1970);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水木しげるの妖怪事典』(東京: 東京堂出版, 1981);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日本妖怪大全』(東京: 講談社, 1991) 등이 대표적이다.

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마쓰 가즈히코 이후의 요괴학의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21)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살펴본 일본의 요괴학사와 그 속에서 전개되어 온 요괴개념론을 전제로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요괴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요괴학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요괴적인 존재의 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자료와 구술자료 중 이미 하나의 완결된 줄거리를 지닌 민담 등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요괴의 외양와 성격, 등장하는 장소와 인간과의 관계 등을 추출해 온 기존의 요괴 서술 방법과는 달리, 요괴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존재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등장하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22)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요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인데 특히 본고에서는 재해 상황 속에서 '재해요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존재의 등장 배경과 이것이 사회에 널리 유포되는 계기,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존재가 '요괴'로 등장하고 인식되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해'라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어떤 초자연적 존재를 문화적으로 소환하는 것에 사람들이 크게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는 점, 그러한 존

---

21) 요괴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며 고마쓰 가즈히코 이전의 요괴학자과 요괴학의 경계 밖에서 요괴에 대해 언급한 작가들을 열전 형식으로 정리한 서적이 출판되기도 했다. 이토 신고, 고오린테 효센 엮음(伊藤愼吾, 氷厘亭氷泉編),『列伝体妖怪學前史』(東京: 勉誠出版, 2021). 본고에서 다룬 이노우에 엔료에서 시작해서 에마 쓰토무, 야나기타 구니오, 미즈키 시게루 등도 등장한다. 한편 일본 요괴학과 요괴학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히로타 류헤이(廣田龍平)가 쓰쿠바대학 박사학위논문(2021)을 수정보완하여 출판한『妖怪の誕生-超自然と怪奇的自然の存在論的歴史人類學(요괴의 탄생: 초자연과 괴기적 자연의 존재론적 역사인류학)』(東京: 青弓社, 2022)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히로타는 요괴개념을 둘러싼 '초자연'과 '자연'이라는 개념구분의 근대성을 분석하며, '초자연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요괴학 자체가 지닌 근대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 야나기타 구니오와 고마쓰 가즈히코의 요괴연구를 '요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가미(神)'를 연구하기 위한 요괴 연구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22) 요괴발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마쓰 가즈히코 역시 2007년 신서판『妖怪學新考』의 후기에서 차후의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妖怪學新考: 妖怪からみる日本人の心』(東京: 講談社, 2015), 313.

재가 갑자기 한 개인에 의해 특정 시기에 창조되었다기보다는 이전에 유사한 이미지와 표상이 존재했고 이를 특정 시기에 특정 매체를 통해 특정한 이미지와 내러티브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전근대와 현대의 두 재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요괴'라는 존재를 통해 고마쓰 요괴학의 요괴개념이 지니는 한계도 자연스레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요괴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지적해 보고자 한다.

Ⅲ. 전근대 재해요괴의 등장 : 1855년 안세이 에도지진과 나마즈

1. 지진의 발생과 나마즈에(鯰絵)의 등장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비일상적인 재해 사태가 발생하면 인간은 왜 이 재해가 이때 이곳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 물으며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생물체로서 생존과 관련된 재해 사태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해대처의 실천이 동반되는 것이다. 이때 역사적으로 재해인식과 재해대처의 실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온 것이 초자연적 존재였으며 여기서 '요괴'라는 존재가 등장할 여지가 생긴다. 재해 사태에서 등장하는 요괴는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발생한 재해를 배경으로 등장하기에 그 등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재해와 관련된 서술자료가 매우 풍부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23] 이러한 자료 속에서 재해 관련 요괴의 등장 계기를 구체

23) 일본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재해가 일어났고 이를 체험하거나 견문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들이 매우 풍부하게 남아있다. 필자는 이러한 자료들 중에 특히 <재해견문기>라고 부를 수 있는 자료에 재해에 대한 종교적 인식과 실천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해자료론에 대해서는 박병도(朴炳道), 『近世日本の災害と宗教―呪術·終末·慰霊·象徴』(東京: 吉川弘文館, 2021)의 1장 「재해견문기로 보는 주술과 종말-간분 2년의 오우미·와카사 지진과 『가나메이시』」를 참조.

적으로 읽어낼 수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 재해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요괴적인 존재를 살펴보려는 이유도 이러한 존재가 등장하는 계기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근대 재해 때에 등장한 '요괴'의 사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도쿄 즉 에도에서 1855년에 발생한 안세이 에도지진 때에 등장한 '나마즈'라는 존재이다. 나마즈(鯰)는 일본어로 '메기'라는 의미인데 메기를 이미지로 한 존재가 이 지진을 일으킨 원인으로 등장한다. 먼저 '나마즈'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배경부터 살펴보자. 1855년(안세이 2년) 음력 10월 2일 밤 10시경에 규모 7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도쿄만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이전 10여 년간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해왔고 1855년에만 해도 세 차례나 지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속지진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1만 명을 넘었다고 추산된다. 지진 이튿날부터 에도시대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라와반(かわら版)이라는 1장짜리 목판인쇄 매체를 통해 지진과 관련된 피해지역, 화재지역 등의 여러 정보가 공유된다. 그리고 이 가와라반이라는 매체의 형태를 통해 나마즈에(鯰繪)라는 그림이 에도에서 제작되고 에도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된다. '나마즈에'는 번역하자면 '메기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와 그 메기를 통제하는 가시마 신궁(鹿島神宮)의 제신인 가시마대명신(鹿島大明神), 그리고 가시마대명신이 메기가 지진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도록 메기 위를 누르고 있는 가나메이시(要石)라는 바위, 이 세 가지가 중심적으로 그려진다.[24]

24) 안세이 에도지진과 나마즈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박병도, 「나마즈에(鯰繪)에 나타난 일본의 지진신앙과 그 변모」, 『역사민속학(歷史民俗學)』 40 (2012): 189-227를 참조.

<그림2. 나마즈에 No.38>

<그림3. 나마즈에 No.99>

실제 그림을 통해 나마즈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2. 나마즈에 No.38>[25]에서는 가시마대명신이 가나메이시로 큰 메기를 누르고 있고 그 앞에 조그만 네 마리의 메기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빌고 있다. 그림 속에 적혀있는 글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에게 원한은 없지만 메기조림이 될 것이 두려워 움직였더니 지진이 나게 되었고 그 죄를 뉘우치니 용서해달라"하는 내용인데 작은 메기 네 마리는 이전에 지진을 일으킨 메기로 표현되어 있다. 지진의 크기에 따라 메기의 크기가 구별되고 있는데 이처럼 의도치 않게 지진을 일으켜서 가시마대명신에게 사죄를 하는 내용의 나마즈에가 이 외에도 다수 있다. 한편 <그림3. 나마즈에 No.99>에서는 지진을 일으킨 이유로 다른 내용을 제시한다. 그림을 보면 메기가 수염으로 돈 상자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잡고 있는데 글 속의 내용에는 "인간이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도리를 지키지 않고 욕망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가시마대명신이 명을 내려 지진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다. 즉 여기서 메기는 가시마대명신의 명을 받은 사자(使者)로서 지진을 일으켜 욕망에

25) 나마즈에의 번호는 1995년 출판된 나마즈에에 대한 기본 자료집인 미야타 노보루, 다카타 마모루 감수(宮田登・高田衛 監修), 『鯰繪－震災と日本文化』(東京: 里門出版, 1995)에서 붙인 번호를 기준으로 삼는다.

빠진 잘못된 세상에 경고를 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마즈에는 <메기-가시마대명신-가나메이시>라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표현되지만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 그 속에서 메기와 가시마대명신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림에 따라 매우 다양한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2. 재해요괴로서의 '나마즈'

나마즈에에 그려진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메기와 가시마대명신은 1855년 음력 10월 2일에 발생한 대지진을 설명하기 위해 표상화되어 등장한 초자연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지진을 일으킨 '메기'는 재해를 일으키는 존재로 가장 중심적인 대상이며 이후 요괴적 존재로 인식된다. 한편 가시마대명신은 이러한 요괴를 막는 선한 '가미(神)'인 것이다. 고마쓰 가즈히코의 요괴론을 바탕으로 보자면 가시마신궁에서 제사를 받는 제신인 가시마대명신은 그야말로 '신'이고, 지진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가옥을 파괴시켰으며 인간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는 메기는 '요괴'라고 할 수 있다.[26] 그러나 지진 당시 나마즈를 그 자체로 '요괴'나 앞에서 살펴본 요괴의 유사개념으로 부른 흔적을 나마즈에와 당시의 다른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다만 고마쓰 가즈히코 등의 요괴 연구자들은 나마즈에 속의 메기를 요괴적 존재의 하나로 예를 드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 대중들도 이 메기를 '요괴'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과연 이 메기가 과연 고마쓰의 요괴론에 들어맞는 '요괴'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도 많다. 여기서는 재해요괴로서의 메기의 성격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마즈에라는 매체를 통해 에도와 에도 주변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라는 존재가 대중적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얻게 되지만 이것이 1855년 지진과 함께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지진이 지속해서 일어났고 이

26) 나마즈에 중에는 사람들이 막대기 등으로 메기를 공격하든지(<나마즈에 No.61>) 메기를 잡아서 요리하는 그림(<나마즈에 No.57>)들이 다수 있다. 이러한 그림에서의 메기는 지진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전적으로 나쁜 존재로 표상화된 것이다.

원인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시도해 왔는데, 유교적 재인론에 바탕을 둔 천견론과 함께 원령들의 의한 다타리(祟り)설, 양기와 음기의 지중 충돌로 인해 땅속의 바람이 지진을 일으킨다는 음양론적 설명도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지진충(地震の虫)이라는 생물이 땅속에 있다는 상상도 드러나는데 이는 중세 이후 땅을 감싸고 있는 뱀 또는 용과 같은 기다란 존재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간다.[27] 에도시대 이후 이러한 존재가 메기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쓰오 바쇼의 1678년 하이쿠에서는 지진을 일으키는 존재로서의 '메기'가 언급되기도 한다. 한편 지진을 일으키는 존재로 메기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가는 것과 별도로, 현재 이바라키현 가시마시에 위치한 가시마신궁의 가시마대명신은 무가의 수호신이라는 종래의 인식에 더해져 지진을 가나메이시(要石)라는 돌로 통제할 수 있는 지진의 수호신이라는 믿음도 14세기경부터 나타나게 된다.[28] 1662년에 일어난 지진에 대한 재해견문기인 『가나메이시(かなめいし)』에는 용왕(龍王)이 화를 낼 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가시마대명신이 가나메이시로 용의 머리와 꼬리를 누르고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있다.[29] 이 용이 이후 메기로 바뀌어 1855년에는 메기가 지진을 일으키는 존재로 등장한 것이다.

<메기-가나메이시-가시마대명신>의 세 요소로 구성된 기본적인 지진 발생과 통제의 설명은 오랜 기간을 통해 차츰 완성되어 왔지만 왜 하필 그날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 메기를 통제하는 가시마대명신이 왜 그날은 통제하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 메기와 가시마대명신의 구체적인 이미지와 성격묘사는 1855년 지진 이후 나마즈에라는 매체를 통해서야 구체화된다. 다시 말하자

---

27) 14세기 초의 <가나사와문고본 일본도(金澤文庫本日本図)>와 1624년 발간된 <대일본국지진지도(大日本國地震之図)>에 일본땅을 감싸고 있는 기다란 존재가 표현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로다 히데오(黑田日出男), 『龍の棲む日本』(東京: 岩波書店, 2003)를 참조.

28) 14세기경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시마궁사열전기(鹿島宮社例伝記)』라는 가시마신궁의 제신과 역사에 대해 서술한 서책에서 가시마신궁이 지진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가시마대명신이 가나메이시로 땅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9) 재해견문기 『가나메이시(かなめいし)』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분석은 박병도(朴炳道), 『近世日本の災害と宗教』의 1장 「재해견문기로 보는 주술과 종말-간분 2년의 오우미·와카사 지진과 『가나메이시』」를 참조.

면 나마즈에라는 매체가 없었으면 메기와 가시마대명신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나 이 두 존재를 둘러싼 구체적인 이야기가 생길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후 요괴학자들에 의해 메기가 '요괴'라고 평가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마즈에라는 구체적인 이미지와 그림 속의 글을 통해 '메기'는 지진을 일으키는 악한 존재, '가시마대명신'은 이러한 메기를 통제할 수 있는 선한 존재로 표상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에도시대 당시의 가와라반이라는 목판인쇄 매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키요에(浮世繪)로 이후 널리 알려지는 다색목판화를 제작하는 화가, 목판조각가와 인쇄업자, 그리고 이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출판업자와 같은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매체를 이용해서 당시 지진의 피해 정도와 지역을 설명하는 가와라반과 함께 나마즈에가 지진을 설명하는 역할과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막는 부적으로서의 주술적 기능도 하며 당시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유통되고 인기를 끌었다.[30] 당시 320-400여 종의 나마즈에가 유통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막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출판물이었기에 나마즈에에는 출판사(版元)나 화가, 제작 시기에 대한 정보를 숨겼고 지진 후 2개월 정도만 유통되다가 막부의 단속으로 판목을 압수당하게 되어 유통이 금지된다.

흥미로운 것은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메기'라는 존재가 단순히 지진을 일으켜 인간에게 해를 주는 존재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마즈에 속에서 '메기'는 지진을 일으키는 존재이므로 악한 존재로 표상되는 그림이 다수이지만 일부의 그림 속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그림3>처럼 가시마대명신의 사자로서 잘못된 세상에 경고를 주거나 욕심많은 부자들을 혼내주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한편으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출해 주는 그림(<그림4>)까지 있어서 메기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긍정적인 존재로 표상되는 그림도 있다.

이러한 나마즈에 속의 '메기'가 단순히 지진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피해만

30) 다수의 나마즈에에는 지진 방지의 주문이 적혀있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 <나마즈에 No. 61>에는 "동서남북 천정에 이그림을 붙이면 지진이 나도 집이 무너질 우려가 전혀 없음"이라고 적혀있어 지진피해방지의 부적 역할을 한 것도 명확히 드러난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경고하거나 부자들을 혼내주는 긍정적 역할까지 한다는 점을 보면, 고마쓰 요괴론에서의 '요괴'와 '신'의 모습을 오가거나 아니면 '요괴'와 '신'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마즈에 속에는 메기가 그려진 족자 앞에 제단을 차리고 기도를 바치는 그림(<그림5>, <그림6>)도 존재하는데, 제사 여부로 신과 요괴를 구분한 고마쓰 가즈히코의 요괴개념에 따르면 메기는 '요괴'가 아닌 '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즉 나마즈에 속에서 메기는 고마쓰의 요괴론의 '요괴'와 '신'의 범주 모두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의 요괴정의와 범주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림4. 나마즈에 No.84>

<그림5. 나마즈에 No.69>

<그림6. 나마즈에 No.129>

이렇게 '나마즈에'라는 하나의 매체에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메기'의 모습이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다르게 표현된 점은 '지진'이라는 재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점차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진 발생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고 재산에 피해를 초래하는 '악'으로 여겨지다가 이후 지진에 대한 천견론적인 해석과 사회비판적이며 풍자적인 해석이 더해지며 '메기'라는 대상을 통해 지진이 지니는 긍정적 측면의 해석이 투사되어 나타났다고도 읽

을 수 있을 것이다.

‘메기’라는 존재는 역사적으로는 오랜 시간을 거쳐 지진을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구체적인 1855년의 지진재해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나마즈에라는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폭넓게 인식될 수 있었고 이 매체를 통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고전적인 메기의 의미와 함께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 세상에 경고를 주는 자 또는 부자를 벌하는 자라는 인식 역시 생길 수 있었다. 이러한 선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존재는 지금까지의 요괴학에서 문헌자료를 통해 개념화해 온 요괴개념과는 꼭 들어맞지는 않는 존재이며, 나마즈에를 통해 드러나는 ‘메기’는 ‘요괴’와 ‘신’의 경계에 걸쳐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나마즈’라는 존재는 1855년의 지진재해라는 구체적인 배경 속에서 가능한 존재라는 점에서 탈역사화되고 단순이론화된 ‘요괴’ 정의가 가지는 한계를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Ⅳ. 현대 재해요괴의 등장 :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아마비에

1. 코로나 재해와 아마비에의 등장

전근대 지진재해 때 등장한 ‘나마즈’라는 존재와 함께 살펴볼 다음 사례는 2020년 현대의 재해요괴이다.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발생이 보고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고,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는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2020년을 중심으로 ‘아마비에(アマビエ)’로 불리는 이미지가 하나의 붐을 일으킬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이 ‘아마비에’라는 것은 에도시대 말기의 가와라반이라는 목판 인쇄물 속에

나오는 '요괴'라고 할 수 있는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사회 여러 방면에서 관련된 문화현상이 나타났다.

<그림7. '아마비에'가 그려진 인쇄물>31)

당시 화제가 된 것은 <그림7> 속에 나오는 머리가 길고 몸은 비늘로 덮여있으며 다리는 세 개인 모습의 존재이다. 현재 교토대학에서 소장 중인 이 그림 속의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히고국 바닷속에 매일 밤 빛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관리가 가서 보니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의 것이 나타났다. (이것이 말하기를) "나는 바닷속에 사는 아마비에(アマビエ)라고 하오. 올해부터 육 년간 여러 번(國)에서 풍작이 이어질 것이오. 그러나 역병도 유행할 것이오. 서둘러 나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이시오" 라고 하고는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 그림은) 아마비에를 그려서 관리가 에도로 보낸 것이다.
>
> 고카(弘化) 3년 4월 중순

31) 원제는 <肥後國海中の怪>로 '히고국(현 구마모토현 지역) 바닷속의 괴'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괴(怪)'는 형용사적인 의미를 살려서 '괴이한 현상'으로도, 명사적 의미를 살려 '요괴' 또는 '괴물'로도 해석가능하다. 현재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웹에서도 원본열람이 가능하다.

글의 내용을 보면 고카 3년인 1846년에 작성된 것으로, 히고국 즉 현재의 구마모토 앞바다에 반짝이는 것이 있어 가서 보니 스스로를 '아마비에'라고 칭하는 <그림7>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육 년간의 풍년과 함께 역병도 예언한다. 그러고는 아마비에의 모습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며 사라지는데, 사람들에게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역병을 막아주는 부적의 역할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인쇄물 자체는 일반대중은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인쇄물 속의 '아마비에'라는 존재가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며 '아마비에 붐'이 일어난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의 아마비에 유행의 의미와 아마비에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적이 있지만,[32] 아마비에 붐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언급된 적이 없었는데 필자는 2020년 7월에 아마비에 유행 현상과 그 계기를 조사해서 발표한 바가 있다.[33] 여기서는 그 과정을 간략

32)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아마비에 유행에 관해서는 2020년 후반부터 여러 연구가 발표된다. 대다수의 연구는 전근대 역병과 신앙, 역병과 요괴를 주제로 관련 신앙과 요괴를 모아서 분류하고 소개하는 가운데에 아마비에 유행을 언급한다. 스즈키 마사타카(鈴木正崇), 「疫病と民間信仰一祭礼·アマビエ·鼠塚」, 『アジア遊學253 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 新しい世界の國家·宗教·日常』, 玄武岩·藤野陽平 編 (東京: 勉誠出版, 2020), 203-220; 아마다 아키노리(天田顯德), 「祭礼の中止、妖怪の流行一「疫病よけ」を手掛かりに」, 『アジア遊學253 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 新しい世界の國家·宗教·日常』, 玄武岩·藤野陽平 編 (東京: 勉誠出版, 2020), 191-202; 도고 류(東郷隆), 『病と妖怪-予言獣アマビエの正体』 (東京: 集英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21) 등이 있으며 박병도(朴炳道), 「災害」としての近世日本の「疫病」と宗教的對處一疱瘡·痲疹·コレラからコロナまで」, 『現代宗教2021』, 國際宗教文化研究所編 (東京: 國際宗教文化研究所, 2021), 103-125에서는 에도시대 역병에 대한 종교적 대처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며 아마비에 유행의 종교적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학순, 「전염병과 요괴-역병 예언과 퇴치기원의 요괴」, 『일본연구』 35 (2021): 63-86에서 아마비에 유행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비에 유행에 대한 분석보다는 고마쓰 요괴학을 전제로 전근대 역병관련 요괴를 소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33) 2020년 7월 30일에 온라인으로 열린 도호쿠대학 동북아시아연구센터 재해인문학유니트 7월 연구회에서 「근세 일본의 역병과 코로나 사태(近世日本の疫病とコロナ事態)」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하게 정리해서 1846년의 그림 속의 존재가 어떻게 2020년에 되살아나 붐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8. 2월 27일 족자점의 트위터> <그림9. 3월 17일 미즈키 프로덕션 트위터>

아마비에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에도시대의 그림을 통해서가 아니라 앞의 2장에서 현대 대중문화의 요괴인식에 큰 영향의 준 인물로 언급한 미즈키 시게루가 그린 아마비에 그림을 통해서였다. 아마비에는 2020년 2월 27일 요괴그림 족자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게의 트위터(<그림8>)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된다.[34] 이 족자점에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요괴(妖怪) 중에 '전염병이 생기면 자신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라'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비에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올린다. 이 족자는 앞의 에도시대의 그림을 참고한 듯하나 꽤 험악한 얼굴을 한 존재가 바닷속에 서 있는 구도로 그려져 있다. 이 이후에 조금씩 트위터상에 아마비에에 대한 언급이 늘다가 3월 17일에 미즈키 시게루의 저작물과 판권을 관리하는 회사인 '미즈키 프로덕션'에서 미즈키 시게루가 그림을 그리고 편찬한 『요괴사전』에 실린 아마비에 그림(<그림9>)을 소개한다.[35] 그러면서 "에도

34) 大蛇堂の妖怪掛け軸専門店(@orochidou)의 2020년 2월 27일 트위터 내용.

시대 구마모토의 바다에 나타나 '역병이 유행하면 나를 그려서 서둘려 사람들에게 보여라'라고 말하고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춘 요괴...라기보다는 가미(神)에 가까운 것, 현대의 역병이 사라지길"이라는 내용을 투고한다.36) 이 투고는 20만 회에 가까운 '좋아요'와 10만 회에 가깝게 리트윗이 되면서 아마비에의 붐이 시작된다.

<그림10. 인스타그램의 아마비에유행>

<그림11. 아마비에 책 표지>

<그림12. 후생노동성 어플>

이 아마비에에 대한 인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재택수업과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는 '자숙(自肅)'이 요구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 나름의 아마비에를 그림으로 그리고 다양한 재료로 인형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그림10>)에 투고하였다. 이후 SNS상에서는 이를 '아마비에 챌린

35) 미즈키 시게루가 그린 아마비에 그림은 그가 편찬한 여러 요괴 사전에 실려 있다.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水木しげるの續·妖怪事典』(東京: 東京堂出版, 1984)를 비롯해서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決定版 日本妖怪大全 妖怪·あの世·神様』(東京: 講談社, 2014), 57; 미즈키 시게루 그림, 무라카미 겐지 엮음(水木しげる畫, 村上健司編),『日本妖怪大事典』(東京: 角川書店, 2015), 38-39 등에서 확인가능하다.

36) 水木プロダクション(@mizukipro)의 2020년 3월 17일 트위터 내용.

지(アマビエチャレンジ)'라고 부르며 자기 나름의 아마비에를 그려서 경쟁적으로 올리기 시작하여 아마비에 붐은 가속화된다. 그리고 만화가와 작가들도 아마비에 챌린지에 동참해서 자신들의 작품 87점을 모은 책(<그림11>)을 2020년 5월에 출판하기도 한다.[37]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7일 코로나 감염증 사태를 관할하는 정부부서인 후생노동성의 웹사이트에 코로나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접촉확인 어플의 첫 화면(<그림12>)을 공개하는데 여기에 에도시대의 아마비에 이미지를 좌우전환하여 넣게 되고, 이후 아마비에는 일본에서 코로나 재해 상황을 상징하는 존재로 떠오른다.

아마비에에 대한 관심을 시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글트렌드(trends.google.com)에서 'アマビエ(아마비에)'를 검색해보면 2020년 3월경부터 관심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서 5월에 정점을 찍고 이후로는 점차 낮아지지만 2021년 4월까지는 관심이 꾸준히 이어진다. 즉 일본에서의 코로나 유행 첫해에 아마비에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되고 대다수의 일본 대중들은 아마비에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행에 편승해서 아마비에 이미지를 이용한 상품화도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는데, 특히 청주와 맥주의 상품표지에 캐릭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과자모양이나 인형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기도 했다. 아마비에 이미지를 상품화하려는 열기가 과열되며 광고대행사 덴츠(電通)는 아마비에 이미지를 상표등록출원을 했다가 대중의 비판을 받고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38]

한편 아마비에의 유행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상품화로만 확장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의 가와라반에서 아마비에가 "역병이 유행할 때는 나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이시오"라고 말한 내용이 역병을 막는 주술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는지 효고현 히로타 신사(廣田神社)에서는 2020년 3월 단계에 이미 참배객들에게 무료로 아마비에가 그려진 부적(<그림13>)을 배포하기도 했고 4월 이후로는 전국 각지의 신사와 사원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진정기원제 등 역병을 물리치는 의례를 진행하며 아마비에가 그려진 부적(お守り)과 참배기념도장(朱印)을 준비해두는

37) 오쿠보 가오리 엮음(大久保かおり編),『みんなのアマビエ』(東京: 扶桑社, 2020).
38) 덴츠는 2020년 6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비판을 받고 7월 6일 취소했다.

곳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음식점과 상점 등에서는 영업을 단축 내지 중지하면서 출입문에 “역병퇴산(疫病退散)”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마비에의 이미지를 그려놓은 종이(<그림14>)를 붙이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기도 했다.

<그림13. 히로타 신사의 부적> <그림14. 아키타역 상점가의 부적>39) <그림15. 아마비에 석상>40)

즉 아마비에 유행에는 역병퇴치를 위해 주술적, 종교적으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습도 나타난 것이다. 1846년의 인쇄물에서는 풍년과 역병을 예언하는 존재로서 아마비에가 부각되었지만,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예언자로서의 의미보다는 역병퇴치의 존재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며 사람들은 아마비에를 그려 공유했고, 국가의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후 상품화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역병퇴치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도 부여되며 부적과 석상(<그림15>)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

39) 2020년 6월 9일 아키타역 상점가 출입구에 붙어 있는 것을 필자가 촬영.

40) 2020년 10월 중순에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에 세워진 아마비에 석상(높이 2m)으로 ‘세계역병퇴산(世界疫病退散)’이라는 비도 함께 세워졌다.

2. 재해요괴로서의 ‘아마비에’

아마비에는 에도시대의 요괴가 현대에 부활한 것으로 일반대중과 학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다. 아마비에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유사한 이름의 ‘아마비코(アマビコ·尼彦·海彦)’라는 존재와의 관련성 등이 지적된 바가 있었다.41) 아마비코(<그림16>)는 구마모토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바닷속에서 출현하며 길흉을 예언하는 다리 세 개의 존재라는 점에서 아마비에와 공통점이 있지만, 온몸이 털로 덮여있고 외양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마비코와 유사한 그림이 아마비에 그림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을 근거로 아마비에는 아마비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아마비에 외에도 에도시대 말기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 시기 사이에는 전염병과 관련된 다양한 존재들이 등장하곤 했다. 아마비에가 유행하자 일본 각지의 자료관과 박물관에서도 전근대의 역병과 관련된 요괴를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 속의 존재를 소개하는데 야마나시 현립박물관에서 소개한 머리가 두 개 달린 새인 요겐노토리(ヨゲンノトリ, <그림17>) 등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림16. 아마비코>42)

<그림 17. 요겐노토리>43)

41) 유모토 고이치(湯本豪一), 「予言する幻獸ーアマビコを中心に」, 『日本妖怪學大全』, 小松和彦編 (東京: 小學館, 2003), 103-125; 나가노 에슌(長野榮俊), 「予言獸アマビコ考-海彦をてがかりに」, 『若越鄕土硏究』 49-2 (2005): 1-30; 나가노 에슌(長野榮俊), 「予言獸アマビコ·再考」, 『妖怪文化硏究の最前線』, 小松和彦編 (東京: セリカ書房, 2009), 131-162.

하지만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모습을 그려서 SNS상에 공개하는 대상이 된 것은 오직 아마비에뿐이었다. 아마비코나 요겐노토리 등도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상징이 된 것은 아마비에뿐이었는데 왜 아마비에만 유행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다 할만한 설명이 제시된 적이 없다. 여기서 아마비에가 선택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 아마비에 이미지 자체의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아마비에 챌린지 속에서 사람들이 각자가 그린 아마비에를 SNS상에 투고하며 적은 글 속에서 다른 역병 관련 존재들과는 달리 아마비에에 대해 '가와이(可愛い)' 즉 모습 자체가 '귀엽다'고 언급하는 점이 눈에 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그 귀여움을 강조해서 그린 그림이나 인형이 많으며 이후 상품화된 아마비에나 석상으로 만들어진 아마비에도 웃는 표정에 여러 가지 색깔의 장식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다른 존재들보다 아마비에가 지닌 외양적 특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아마비에를 무섭게 그린 족자점의 트위터 투고가 아마비에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리는 데는 공헌을 했지만 이후 미즈키 시게루가 귀여움을 강조해서 그린 아마비에 그림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되고 이것이 붐으로 이어진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미즈키 시게루의 그림과 원본 가와라반 속의 아마비에는 구체적인 모습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20년 이를 트위터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은 아마비에를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인식했고 친근감을 느껴 자기 나름의 아마비에를 그리고 만들어 보자는 시도가 나타났다. 2020년의 아마비에 유행에는 SNS매체를 즐겨 사용하는 층이 선호하는 외모적 특성을 아마비에가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인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42) 요괴학자 유모토 고이치(湯本豪一, 1950-)가 소장하고 있는 아마비코(尼彦) 그림으로 메이지 시대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43) 요겐노토리(ヨゲンノトリ)는 '予言の鳥'의 일본어 음으로 볼 수 있으며 '예언의 새'로 번역할 수 있다. 『폭사병유행일기(暴瀉病流行日記)』(야마나시현립박물관 소장)라는 1858년 콜레라 대유행과 관련된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새는 콜레라 유행 1년 전 12월에 나타나서 다음 해 8-9월에 세상 사람의 90%가 죽는 난이 있다고 예언하며, "나의 모습을 아침저녁으로 우러르며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 역시 트위터(@kaiseum_ypm)를 통해서 소개되어 화제가 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외모적 특성과 함께 아마비에가 지닌 의미도 이 유행에 크게 이바지했을 것이다. 이는 1846년 가와라반이라는 매체를 통해 처음으로 이미지로 그려졌을 때와 2020년 트위터를 통해 알려졌을 때를 구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846년에 종이 한 장의 그림과 글로 전해진 아마비에는 풍년과 역병을 예언하는 존재였는데 당시 이를 기록하여 에도로 알린 이들은 이 아마비에를 '괴(怪)'로 칭하고 있다. 당시에 아마비에를 '요상한 현상' 또는 현대적 의미의 '요괴'나 '괴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존재는 대중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화제가 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트위터라는 매체를 통해, 이후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를 통해 아마비에는 대중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이후 코로나의 상징처럼 자리매김해 버린다. 그 가운데 원래 가지고 있던 예언자로서의 속성은 잊혀지고 "역병퇴산"이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역병퇴치의 존재로 그 의미조차 변해버린다. 그러나 이 역병퇴치의 의미는 주술적이며 종교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며 엄숙함과 신성함 속에서 다뤄지기보다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이 가지는 소통적이며 오락적이며 전시적인 매체의 특성을 전제로 아마비에의 귀여움을 스스로 그리고 만들어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아마비에 챌린지 형식의 아마비에의 유행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고립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로와 안정을 제공해 주었다는 측면과 함께 한편으로 고립된 사람들 서로 간의 또 다른 소통방식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내면 속에 팬데믹 종식을 염원하는 종교적 동기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2020년의 아마비에라는 '재해요괴'의 유행은 그 시작과 발전과정에 SNS라는 매체의 속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매체적 특성이 이 붐의 특징을 읽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재해요괴'로서의 아마비에는 고마쓰 요괴학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존재로 이해할 수 있을까. 2020년의 아마비에 유행에서 아마비에는 이것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틈도 없이 처음부터 '요괴'로 규정되었고, 앞의 미즈키 시게루 프로덕션의 트위터 내용에서 본 것과 같이 "요괴...라기보다는 가미

(神)에 가까운 것"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요괴-신>이라는 고마쓰 요괴개념의 도식 속에서 이해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아마비에는 고마쓰 요괴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재해를 일으킨 부정적인 초자연적 존재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요괴'라고 보기는 애매한 지점이 있다. 한편 주술적, 종교적 의미로 아마비에 부적과 석상을 만들어 붙이고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아마비에에 대한 제사로 이해한다면 아마비에는 '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비에를 그리고 만든 큰 동기가 아마비에가 귀여워서 그리고 고독을 심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인 점도 생각한다면 이 '신으로서의 아마비에'는 고마쓰 요괴학에서 이야기하는 초자연적 존재로 인간에서 제사를 받는 민속적 의미의 '가미'와도 꽤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846년에 구마모토에서 등장한 '아마비에'는 '괴(怪)'로 불리며 요괴 또는 괴물적 존재로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지만, 아마비에 스스로는 풍년과 역병을 예언하는 초자연적 존재로서 자신을 그려서 제사하기를 바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사라지는데 이때야말로 오히려 '가미'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이미지의 존재조차도 이것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매체와 시기에 따라 '요괴'라고 불리면서도 '신'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 '신'의 의미도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유행한 '아마비에'라는 존재 역시 탈역사화되고 단순화된 <인간-요괴-신>의 세 요소를 통한 요괴 정의에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Ⅴ. 나가며: '재해요괴'의 의미와 요괴학의 과제

일본문화를 읽으려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 되어온 '요괴'라는 용어는 본고에서 살펴본 대로 처음부터 '특별한 능력과 모습을 지닌 초자연적 존재'라는 현대적인 의미로 등장했던 용어가 아니라 '요상하고 괴이한'이라는 형용사적 의미에서 시작되어 근대 이후 요괴학의 등장과 함께 특정 이미지와 물리적인 형태를 지닌 대상을 지칭하게 되었다. 근현대 요괴학사 속의 세 인물 이노우에 엔료, 야나기

타 구니오, 고마쓰 가즈히코를 통해 구체화되어 온 '요괴' 개념은 1960년대 이후 만화,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 속의 요괴 표현과 이후의 요괴 유행과 맞물려 오늘날의 '요괴'하면 자연스레 떠올리는 '이미지를 지닌 대상으로서의 요괴' 개념으로 일반화될 수 있었다. 한편 그러한 현대 요괴학사를 종합하며 오늘날 요괴이해의 기반을 제시한 고마쓰 가즈히코의 요괴론은 어떤 존재라도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신과 요괴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요괴개념을 제시해 주었다.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요괴적 존재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요괴의 박물학과 사전학을 기반으로 귀납적으로 추출된 이와 같은 요괴개념은 폭넓은 설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요괴'로 인식이 되며 그때 '요괴'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요괴의 발생학'과 '요괴의 역사학'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이전부터 있던 존재가 하나의 사태를 계기로 특정 매체를 통해 '요괴화'되고 그 '요괴'에 의미가 부여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존의 민속자료 속에서 수집과 분류를 중심으로 작업해 온 요괴학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전근대와 현대의 재해 때 등장한 존재를 분석하였다.

이는 현대 일본 요괴학사와 그 속에서 추출된 요괴개념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환기의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 그 발생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재해요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의 발생과정과 그 속에서의 매체의 중요성, 그리고 이 매체를 통한 대중 인식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1855년의 지진재해 이후 나마즈에라는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나마즈'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트위터라는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아마비에'를 통해 이들이 고마쓰 가즈히코의 요괴개념으로는 '신'으로도 '요괴'로도 명확히 호칭하기 어려운 경계적인 존재이며 선악으로 이분화되지 않는 다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두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고정화되고 단순이론화된 '요괴' 개념은 오히려 연구대상의 범위를 좁혀버리거나 대상을 이해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대 이후 짧은 요괴학의 역사 속에서 요괴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확고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연구대상

의 설정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여전히 필요한 단계이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요괴'를 과연 어떠한 것으로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그리고 왜 하는지 계속해서 자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고에서 '재해요괴'라고 지칭한 두 사례는 실제 '요괴'인지 아닌지부터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면서 이미 현대인들에게는 '요괴'로 처음부터 인식된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대인의 요괴인식과 역사상 형성되어 온 요괴개념과의 줄다리기 속에서 현대 요괴학은 그 연구 대상인 '요괴'의 개념학을 또다시 새롭게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 고마쓰 가즈히코 이후의 요괴학은 요괴의 개념학을 둘러싼 요괴학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서만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제어: 요괴, 요괴학, 일본재해, 나마즈, 아마비에, 코로나

원고접수일: 2022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2022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2일

참고문헌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憑靈信仰論-妖怪研究への試み』. 東京: 伝統と現代社, 1982.

_____.『일본의 요괴학 연구: 요괴를 통해 보는 일본인의 멘탈리티』. 박전열 옮김. 서울: 민속원, 2009. 원저는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妖怪學新考: 妖怪からみる日本人の心』. 東京: 小學館, 1994.

_____.『妖怪學新考: 妖怪からみる日本人の心』. 東京: 講談社, 2015.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 엮음.『요괴학의 기초지식』. 천혜숙 외 옮김. 서울: 민속원, 2021. 원저 고마쓰 가즈히코 엮음(小松和彦編).『妖怪學の基礎知識』. 東京: 角川學芸出版, 2011.

고야마 사토코(小山聰子).『もののけの日本史-死靈、幽靈、妖怪の1000年』. 東京: 中央公論新社, 2020.

구로다 히데오(黑田日出男).『龍の棲む日本』. 東京: 岩波書店, 2003.

김진영 외 공저.『일본 요괴문화 상품이 되다』. 서울: 시간의물레, 2018.

김학순.「전염병과 요괴-역병 예언과 퇴치 기원의 요괴」.『일본연구』35 (2021): 63-86.

나가노 에슌(長野榮俊).「予言獸アマビコ考-海彦をてがかりに」.『若越鄕土研究』49-2 (2005): 1-30.

_____. 「予言獸アマビコ · 再考」. 『妖怪文化研究の最前線』, 小松和彦編, 131-162. 東京: セリカ書房, 2009.

도고 류(東鄕隆).『病と妖怪-予言獸アマビエの正体』. 東京: 集英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21.

류정훈 외 공저.『진짜 일본은 요괴문화 속에 있다』. 서울: 시간의물레, 2018.

미야타 노보루, 다카타 마모루 감수(宮田登・高田衛 監修).『鯰繪－震災と日本文化』. 東京: 里門出版, 1995.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水木しげる妖怪畵集』. 東京: 朝日ソノラマ, 1970.

_____.『水木しげるの妖怪事典』. 東京: 東京堂出版, 1981.

_____.『水木しげるの續·妖怪事典』. 東京: 東京堂出版, 1984.

_____.『日本妖怪大全』. 東京: 講談社, 1991.

_____.『決定版 日本妖怪大全 妖怪·あの世·神様』. 東京: 講談社, 2014.

미즈키 시게루 그림, 무라카미 겐지 엮음(水木しげる畫, 村上健司編).『日本妖怪大事典』. 東京: 角川書店, 2015.

박병도.「나마즈에에 나타난 일본의 지진신앙과 그 변모」.『역사민속학』40 (2012): 189-227.

_____(朴炳道).『近世日本の災害と宗教ー呪術·終末·慰靈·象徵』. 東京: 吉川弘文館, 2021.

_____(朴炳道).「災害」としての近世日本の「疫病」と宗教的對處ー疱瘡·痲疹·コレラからコロナまで」.『現代宗教2021』, 國際宗教文化研究所編, 103- 125. 東京: 國際宗教文化研究所, 2021.

박전열 외 공저.『현대 일본의 요괴문화론』. 서울: 제이앤씨, 2014.

박전열.「현대 일본사회의 요괴 붐」.『일본비평』10-1 (2018): 68-99.

서화룡 엮음.『귀신·요괴·이물의 비교문화론』. 서울: 소명, 2014.

스즈키 마사타카(鈴木正崇).「疫病と民間信仰ー祭礼·アマビエ·鼠塚」.『アジア遊學253 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 新しい世界の國家·宗教·日常』, 玄武岩·藤野陽平編, 203-220. 東京: 勉誠出版, 2020.

아마다 아키노리(天田顯德).「祭礼の中止、妖怪の流行ー「疫病よけ」を手掛かりに」.『アジア遊學253 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 新しい世界の國家·宗教·日常』, 玄武岩·藤野陽平編, 191-202. 東京: 勉誠出版, 2020.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妖怪談義』. 東京: 修道社, 1956.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柳田國男全集』6. 東京: 筑摩書房, 1989, 7-212에 재수록.

야마다 유지(山田雄司).『怨靈とは何か-菅原道眞·平將門·崇德院』. 東京: 中央公論新社, 2014.

에마 쓰토무(江馬務).『日本妖怪変化史』. 東京: 中外出版, 1923. 에마 쓰토무(江馬務),『日本妖怪変化史』. 東京: 中央公論新社, 2018로 재출판.

오쿠보 가오리 엮음(大久保かおり編).『みんなのアマビエ』. 東京: 扶桑社, 2020.

유모토 고이치(湯本豪一).「予言する幻獸ーアマビコを中心に」.『日本妖怪學大全』, 小松和彦編, 103-125. 東京: 小學館, 2003.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妖怪玄談』. 1900(초판 1887)(일본국회도서관디지털콜렉션 청구번호: 82-250). 도요대학이노우에엔료기념학술센터 엮음(東洋大學井上円了記念學術センター編).『井上円了 妖怪學全集』第4卷. 東京: 柏書房, 2000에 재수록.

_____.『妖怪學講義』. 東京: 哲學館, 1894(일본국회도서관디지털콜렉션 청구번호: 14-221). 도요대학이노우에엔료기념학술센터 엮음(東洋大學井上円了

記念學術センター編).『井上円了 妖怪學全集』第1-3巻. 東京: 柏書房, 1999에 재수록.

이케가미 요시마사(池上良正).『死者の救濟史—供養と憑依の宗教學』. 東京: 角川書店, 2003.

이토 신고, 고오린테 효센 엮음(伊藤愼吾, 氷厘亭氷泉編).『列伝体妖怪學前史』. 東京: 勉誠出版, 2021.

중앙대학교 한일문화연구원 엮음.『일본의 요괴문화: 그 생성원리와 문화산업적 기능』. 서울: 한누리미디어, 2005.

한양대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엮음.『요괴: 또 하나의 일본의 문화코드』. 서울: 역락, 2019.

히로타 류헤이(廣田龍平).『妖怪の誕生-超自然と怪奇的自然の存在論的歴史人類學』. 東京: 青弓社, 2022.

Beal, Timothy. "Introduction To Religion and Its Monster." In *The Monster Theory Reader*, edited by Jeffrey Andrew Weinstock, 295-302.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0.

Cohen, Jeffrey Jerome. "Monster Culture(Seven Theses)." In *The Monster Theory Reader*, edited by Jeffrey Andrew Weinstock, 37-5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0.

Abstract

Definition of Yōkai and Disaster Yōkai in Japan:

Focusing on *Namazu* and *Amabie*

Park, Byoungdo (Gyeongsang National Univ.)

It has been said that *yōkai* (妖怪), which often appear as main characters in movies and animations, is a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Japanese culture. However, it is not well known that in premodern Japanese culture, the word *yōkai* meant "strange" and "mysterious" as an adjective. To demonstrate the complexity of this word, this article analyzes two disaster-related *yōkai* in the past and present, which I categorize as Disaster Yōkai (Saigai Yōkai). Namazu (catfish) is a *yōkai* that stands out through Namazu-e (catfish painting) after the great 1855 Edo earthquake while Amabie has become the symbol of COVID-19 as *yōkai* in Japan via social networking sites such as Twitter. Previous scholars of Yōkai Study (妖怪學), such as Yanagita Kunio and Komatsu Kazuhiko, focused on collecting and classifying supernatural beings in folklore and defined them as supernatural beings that control mysterious situations but differ from deities. However, this view does not explai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yōkai*, especially Disaster Yōkai.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becoming *yōkai* to understand the continuity between *yōkai* and deities. It concludes that the distinctions between *yōkai* and deities are too vague to grasp the full meaning of *yōkai*. The new approach to seeing *yōkai*, as a transformation of ordinary beings through certain processes using certain media makes a uniquely meaningful contribution towards discussing *yōkai* in specific disasters and towards understanding the broader complex of issues in the definition of monsters, deities, and supernatural beings in religious studies.

Keywords: Yōkai, disaster, namazu, amabie, COVID-19